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목차

☞ 과월호

☞ 정기구독신청

☞ 사진구입



Special_Jinhae

진해

꽃으로 물든 봄날의 기억

■ 사진/이진옥 기자 · 글/장성배 기자

봄이 오면 그곳엔 눈이 내린다. 다섯 꽃잎의 눈송이가 성긴 햇살을 가르며 흩날린다. 꽃눈은 거리와 철길을 순백으로 물들이고, 실개천과 바다 위에 꽃잎 종이배를 띄운다. 겨우내 검은 등걸 속에서 잉태된 꽃망울이 세상 밖으로 해방을 선언하는 날. 진해에는 꽃잎의 물결이 일렁인다.

겨울이 물러가면 사람들은 봄맞이 생각에 마음이 부푼다. 봄맞이 중 으뜸이 꽃구경이다. 날이 풀리기 무섭게 어디로 꽃을 보러 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한다. 음력 정월부터 개화가 시작되는 여수 동백꽃을 필두로 매화와 벚꽃, 진달래와 철쭉을 찾아 길을 떠난다.

나비도 벌도 아니고 범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왜 꽃구경에 매달리는 것일까? 조선 성종 때 정국인이 지은 상춘곡(嘗春曲)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추려진다.

곡절 많은 속세에 묻혀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옛 사람의 풍류를 따르고픈 심정이 찾아드는 법이다. 선인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살구꽃과 복숭아꽃이 노을 속에 피어나고 버드나무가 싱그러운 푸르름을 더해가는 산야에서 술잔을 기울였다. 맑은 모래 위로 흐르는 물에 잔을 씻어 부어 들고, 꽃가지 꺾어가며 잔 수를 세었다. 그러면 어느새 화창한 봄바람이 술잔에 가득 담기고, 붉은 꽃잎이 옷깃을 스치며 낙화했다.

선인은 또 말했다. 봄이 찾아든 숲에서 교태를 부리는 새들처럼 봄기운에 겨워 어쩔 수 없었다고. 물아일체이거늘 새나 사람이나 흥(興)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봄기운에 이끌려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오른 산봉우리에서 아래를 굽어보면 무릉(武陵)이 가깝게 다가온다.

절정에 이른 봄을 만나다

‘상춘곡’을 영화로 제작한다면 진해는 촬영지로 제격이다. 한반도의 봄은 남쪽 바다에서 시작된다. 남해안으로 올라온 봄기운은 동백나무에 붉은 꽃망울을 틔운 후 산수유 가지를 노랗게 물들인다. 이후 맹렬한 기세로 타올라 봄이 턱밑까지 차오른 순간에 벚꽃을 개화시킨다. 진해의 벚꽃은 남해의 봄기운이 극적으로 발현되는 시점에 만개한다.

진해의 왕벚나무는 일제가 군항을 건설하면서 도시 미관용으로 심었다. 하지만 해방 후 진해 시민들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로 벚나무를 모두 베어냈다. 자취를 감춘 벚나무가 다시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중반이다. 왕벚나무 원산지가 제주도로 밝혀지면서 세계 제1의 벚꽃도시로 가꾸자는 캠페인이 시작된다. 진해 곳곳에 다시 왕벚나무가 식재돼 현재 수십 만 그루에 이른다. 왕벚나무는 벚나무 중 으뜸인 수종으로 다른 종보다 꽃이 탐스럽고 그 양이 많다.

군항제는 왕벚나무의 화양연화(花樣年華)에 맞춰 열린다. 화양연화는 ‘생애의 꽃이 피는 날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말한다. 응축된 생명력으로 꽃의 빛깔과 향기가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이다.

군항제의 개막일은 매년 다르다. 어느 해는 전년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지기도 한다.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제전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군항제 주관처인 이충무공 호국정신 선양회는 매년 심혈을 쏟아 붓는다. 기상청과 농촌진흥청의 기상예보와 개화가 발표에 온 촉각을 기울인다. 하지만 꽃이 피고 지는 일은 하늘이 하는 일인지라 인력으론 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지난해에도 본격적인 개화가 예상보다 늦어져 벚꽃 없이 개막식이 치러졌다.

갑작스런 꽃샘추위는 개화시기를 앓고있는 데는 주범이다. 기상예보와 달리 적셔주는 영하가 높지 않다. 개막일이 확정된 뒤 꽃샘추위가 찾아오면 선양회와 진해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지만 달리 뵈죽한 수가 없다.

올해 군항제는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흘간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진해 벚꽃을 제대로 향유하고 싶다면 군항제 기간에 얹매이지 말아야 한다. 개화 예상 시점은 언제나 빗나갈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 정확한 개화 시점을 확인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진해에서 벚꽃 명소를 찾는 일은 어쩌면 무의미하다. 안민고개, 제황산공원, 여좌천, 장복산, 해군사관학교, 경화역처럼 이름난 곳이 아니더라도 어디나 일품의 풍경을 선사한다. 길이 나있는 곳은 거개가 새하얀 벚꽃터널을 이룬다. 진해시와 해군은 해마다 더 멋진 벚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의 벚나무를 정비한다. 벚나무 상태를 진단해 자연 고사한 것을 캐내고 그 자리에 다시 수령 15년 안팎의 벚나무를 심는다.

청명(淸明) 무렵 벚나무가 꽃봉오리를 터트리기 시작하면 진해 일대는 봄기운에 점령된다. 시 전체가 생명력이 약동하는 거대한 봄 발전소로 변한다. 이 즈음 진해를 찾아가면 겨우내 움츠리고 메말랐던 마음이 회복됨을 느낄 수 있다. 벚꽃 만개한 거리에 서면 누구나 알게 된다. 봄은 참 좋은 계절임을.



인간사뿐 아니라 자연환경도 새옹지마다. 진해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군항으로 자리매김한 덕분에 청정해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군사상 접근 금지 지역이 많고 개발이 제한돼 오히려 맑고 푸른 바다를 보존할 수 있었다. 진해는 이러한 코발트빛 바다를 활용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진해는 백두대간에서 뻗어 나온 능선이 두 팔을 벌려 항구를 감싸안은 형국이다. 곰메(熊山, 653m)는 병풍처럼 둘러친 진해 주변 산봉우리 중 가장 이채롭다. 정상부에 시루를 얹어놓은 듯 거대한 바위(높이 10m, 둘레 50m)가 버티고 있다. 모양처럼 이름도 ‘시루봉’이다. 시루봉에서 바라보면 사방 막힘이 없다. 멀리 거제 앞 바다까지 보일 정도로 탁 트인 조망이 일품이다. 곰메는 봄이면 진달래가, 가을이면 억새와 편백나무 군락이 절경을 이룬다.



군인이 등장하는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은 대부분 해군이다. 영화 ‘사관과 신사’와 오페라 ‘나비부인’이 그 예다. 그에 대한 궁금증은 해군 정복을 보면 어느 정도 풀린다. 해군 정복은 순백의 옷깃 위에 금색 계급장이 부착된다. 산뜻한 매력을 풍기고 마음에 미묘한 떨림을 일으킨다. 새하얀 꽃잎들 사이로 솟아난 벚꽃의 암·수술과 닮아 있다.



벚꽃터널로 잘 알려진 진해 인민고개에는 설만한 곳이 많다. 해질 무렵 인민고개에 올라 쉼터에서 숨을 고르면 낮의 정취와는 또 다른 분위기에 젖어든다. 도심에서 온 온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노을에 물든 바다와 섬들은 아련하게 얼어져간다.



진해는 경남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시(市)다. 그나마 절반 정도가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이다. 군사 시설 보호에 따른 관련 법령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적이다. 반면 온화한 해양기후와 100km가 넘는 해안선, 청정바다와 아름다운 섬들은 진해의 강점으로 꼽힌다.

진해해양공원은 바다에 승부를 걸고 있는 진해의 미래다. ‘군항도시’에서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변신을 시도하는 진해의 꿈이 구현되고 있다. 진해 명동 음지도에 조성돼 현재 해양생물테마파크, 해전사체험관, 군함전시관 등 3개 시설이 운영 중이다. 진해시는 2010년까지 에코빌리지 리조트, 번지점프대, 전자게임장, 수족관 등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진해해양공원을 다양한 체험시설과 볼거리를 갖춘 전국 최고의 해양공원으로 가꾼다는 계획이다.

해양생물테마파크 진해 바다의 니모를 찾아서

그동안 해저 모래펄에 서식하는 극피동물 불가사리는 모두가 오각형 별 모양인 줄 알았다. 매년 낚시에 걸려 올라오는 녀석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그러했다. 진해해양공원의 해양생물테마파크에서 불가사리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다. 전시된 불가사리 중에는 팔(관족)이 10개가 넘는 종도 있었다.

해양생물테마파크는 ‘바다 속 신비의 세계’를 표방한다. 1층은 유영생물전시실, 2층은 저서생물전시실로 꾸며져 있다. 내부로 들어서면 고동을 형상화한 원뿔 형태의 탑이 눈에 들어온다. 3층 천장에 달을 듯 높게 쌓아올린 조개탑은 표면을 코팅 처리한 전복 껍데기로 장식했다.

유영생물전시실에선 다양한 종류의 어류, 심해 물고기, 해양생물의 화석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모형과 패널을 이용해 어류의 분류와 체형적 특징을 설명해놓았다. 그 중 고래와 상어에 대한 설명이 눈길을 끈다. 포유류에 속하는 고래의 일생과 16cm에서 18m에 달하는 상어의 다양한 종류가 흥미롭게 다가온다.

저서생물전시실은 바다 속 암반, 모래, 펄에서 생활하는 고착성 생물을 다루고 있다. 저서생물과 함께 고등어처럼 떼 지어 다니는 물고기, 주변 환경을 이용해 숨어 사는 물고기, 산호와 공생하는 흰동가리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디오라마(Diorama, 그래픽 배경 위에 모형을 설치) 방식으로 구현돼 있다.

해양생물테마파크는 전시실 이외에 체험실, 영상실 등을 갖추고 있다. 체험실에선 어안렌즈를 통해 물고기들의 몸빛이 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영상실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우스꽝스럽게 생긴 아귀 캐릭터의 주인공이 산호마을에 들어오면서 생기는 사건을 줄거리 삼아 바다 속 세계를 재미있게 전달해준다.

해전사체험관 대양을 향해 잠망경을 올려라!

군항 진해의 정체성이 묻어나는 해전사체험관은 동·서양의 역대 해전사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한산대첩부터 미드웨이해전까지 세계사를 바꿔놓은 해전들을 실감 나는 모형과 기록물을 통해 보여준다. 세계 해전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다.

해전사체험관은 학익진(鶴翼陳)을 형상화한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졌다. 학익진은 충무공이 한산대첩 당시 활용한 전법으로 학이 날개를 펴는 형태의 진법을 말한다. 해전사체험관 1층 입구에는 ‘바다, 인간, 전쟁’을 테마로 구성한 조형물이 서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 충무공 입상과 함께 조선시대 대표적인 전선 모형과 화포, 총통들을 볼 수 있다.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서양의 옛 함선 모형도 전시돼 있다.

입체영상실에선 충무공과 영국 넬슨 제독의 업적 및 전술을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감상할 수 있다. 두 해군 제독이 세계 해전사에서 불멸의 영웅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게 된다.

가상 해전 체험실은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으로 이루어져 아이들의 호응이 높다. 전함의 발광 및 수기 신호를 체험하고 직접 조타장치를 조작해 볼 수 있다. 음파 탐지와 잠망경 체험을 통해 잠수함

의 원리도 배울 수 있다. 바다 속에서 녹취된 고래들의 노래와 심해 조류가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고, 잠수함 발달 과정과 어뢰 발사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전사체험관 2층은 해군과 진해를 주제로 꾸몄다. 해군의 중요성, 해양력의 전초기지 진해를 다룬다. 항공모함 이야기, 글라스비전, 해전사 퀴즈 체험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항공모함 이야기와 글라스비전 코너에선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에 대한 흥미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해리어, P-3C 등 해군 항공기 관련 정보가 눈길을 끈다.

군함전시관

백전노장 구축함이 들려주는 이야기

구축함은 잠수함을 잡는 함정이다. 진해해양공원에는 2500t급 구축함이 정박해 있다. 1944년 미국 뉴욕조선소에서 건조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후 한국전쟁에도 참가한 백전노장 구축함이다. 1978년 한국에 인도돼 ‘강원함’의 이름을 달고 우리 바다를 누비다 지난 2000년 12월 퇴역했다.

강원함은 퇴역 후 진해시에 무상으로 대여돼 군함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길이 119m, 높이 34m 규모로 항공모함보다는 작지만 갑판 면적이 축구경기장에 맞먹는다. 내부로 들어가면 복잡한 구조에 머리가 다 어지러울 지경이다. 수많은 구역과 통로로 이루어진 10층 건물을 길게 눕혀 놓았다고 보면 된다.

군함전시관에선 해군들의 함상생활 24시를 체험할 수 있다. 구축함은 함장부터 신출내기 수병까지 수백 명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취사장, 식당, 침실, 이발소, 의무실 등 일상에 필요한 시설은 대부분 갖춰져 있다. 침실은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높였는데, 3~4층 다단계 침대에서 수십 명이 동시에 잠을 자던 수병들의 땀내와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함장 침실은 전화와 TV가 설치돼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딸려 있어 사병 침실과 대비된다.

함정 외부시설인 갑판 위에는 군함을 지휘, 통제하는 함교가 위치한다. 함교 아래 주갑판 위에는 5인치 함포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 사거리가 16km에 달한다. 함포 옆에 설치된 단추를 누르면 실제 발사음을 들어볼 수 있다. 1분당 최고 25발까지 발사되는 함포의 포효를 듣고 있다면 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 가슴이 쿵쾅거린다.



군항제 기간에 진해는 차량과 인파로 넘쳐난다. 지난해 군항제 관광객은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작은 항구도시가 감당할 만한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 이로 인해 군항제 기간에 진해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는 그야말로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열차가 운행되지만 역부족이다. 단기간에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숙박과 식사는 진해와 인접한 창원, 마산, 김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군항제(軍港祭) 46회째를 맞는 전국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다. 올해는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전야제, 추모제, 경축식, 시가행진, 문화예술행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충무공 승전행차와 군악대 페스티벌이 볼거리다. 지난해 승전행차는 경찰 선도차와 해군 헌병 기동대를 선두로 국악예술단 길놀이→태극기→선양회기→해군 군악대→해군 의장대→전도→대고→영정→고적대→거북선→전군→충무공 연(가마)→취타대→후군→풍물패 길놀이→메구 연희단으로 이어졌다. 올해 승전행차는 4월 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충무공 호국정신 선양회 055-546-4310

교통편 항공은 김포-김해공항, 김포-사천공항 노선이 각각 하루 23회, 3회씩 운항된다. 리무진 버스가 김해공항에서 해군교육사령부까지 운행된다. 시외버스는 부산, 마산, 창원에서 진해까지 수시로 운행된다.



황포돛대 노래비 진해 해안관광도로의 중간 지점인 영길만에 위치한 다. 1960년대 후반 가수 이미자가 부른 ‘황포돛대’를 기념하는 노래비이다. 황포돛대의 작사가는 진해 출신의 이일윤 씨로 군복무 시절 고향 바다인 진해 영길만을 회상하며 노랫말을 지었다고 한다. 높이 7m 규모이며 화강석과 청동을 재료로 제작된 노래비의 작품명은 ‘고향의 향수’이다. 노래비 전면에는 가사가 새겨져 있다.

남부내수면연구소 진해 여좌동에 위치한 남부내수면연구소는 약 16만4000㎡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울창한 소나무 숲과 저수지, 양식시설, 민물고기생태학습관 등을 갖추고 있다. 수려한 경관과 함께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어류 등을 볼 수 있다. 군항제 기간에만 개방된다. 남부내수면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진해시와 환경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055-540-2780

해군진해기지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평소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지만 군항제 기간에는 부분적으로 개방된다. 수령 30년 이상의 왕벚나무가 즐비해 더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해군의 군항 부두도 지척에서 볼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군항제 기간에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됐다.

이승만 대통령 별장 이승만 대통령이 별장으로 이용하던 건물로 경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265호다. 한옥과 양옥을 절충한 양식으로 현재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내에 위치해 있다. 별장에서 바라보는 해안 풍광이 절경으로 알려져 있다. 1949년 8월 8일 이 대통령과 장제스 중국 총통이 태평양동맹 결성을 위한 예비회담 개최를 필리핀 퀴리노 대통령에게 제의한 곳이다.

옛 진해우체국 청사 일제가 1912년 진해 중원로터리에 세운 단층 목조건물로 사적 291호다. 동판 지붕에 반원형 채광창을 설치했다. 러시아풍의 절충식 근대건축 양식이다. 원형 교차로의 갈래길 사이에 위치해 정문 쪽은 좁으나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점차 넓어지는 구조다. 현재 진해우체국 회의실 겸 보관소로 이용되며, 우편 업무는 바로 옆에 지어진 신관에서 이루어진다.

진해역 일제시대 건축된 역 가운데 원형이 잘 보존된 예다. 아담한 역사가 고풍스러움을 자아낸다. 2002년 역사 본체를 보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진해역은 1926년 진해선 개통으로 역무가 시작됐다. 현재 여객열차는 마산역에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하루 각각 3회, 2회씩 배차되고 있다.

진해예술촌 & 향토사료관 진해시가 2005년 3월 옛 진해동중학교에 조성한 지역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 및 향토사료 전시실이다. 한국화, 서양화, 조각, 사진, 공예 등 분야별로 진해 예술인들이 작업 활동을 해오고 있다. 4개실로 구성된 향토사료관에는 옛 농기구, 의복, 부엌용구, 가구 등이 전시되고 있다. 한 세대 이전의 교복 및 교과서도 진열돼 있어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055-545-0250, www.jhart.or.kr

에너지환경과학공원 대체에너지 관련 전시관과 소형 풍력발전시설, 태양열급탕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갖춘 공원이다. 1990년대 중반 섬이었던 소죽도까지 바다를 매립해 조성했다. 기피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친환경 에너지를 주제로 한 과학공원을 조성해 의미를 더했다.

범선 모양의 에너지 전시관은 주변 바다와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만들어낸다. 전시관 입구에 풍력, 태양전지 등 청정에너지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부착된 시계탑이 서 있다. 내부로 들어서면 에너지 역사관,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에너지뉴스센터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대체에너지의 발생 원리와 활용 등을 설명해주는 전시물과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체험 공간이 갖춰져 있다. 055-548-2263

진해시립박물관 제황산공원 진해탑 1~2층에 위치하며 전시실, 시청각실, 유물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실에는 진해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 유물, 조선시대 도요지 모형, 웅천읍성 모형 등이 진열돼 있다.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조성된 웅천읍성은 장방형 석축성으로 조선시대 전형적인 읍성의 형태를 보여준다.

민속모형 자료실에선 옛 진해 어민들의 고기잡이 모습을 볼 수 있다. 임진란 당시 쓰시마 섬을 거쳐 진해에 들어와 약 1년 동안 머문 스페인 예수회 신부 세스빠데스의 상륙을 재현한 모형이 눈길을 끈다. 세스빠데스 신부는 하멜보다 60년 앞서 한반도를 밟은 최초의 서양인으로 추정된다. 055-548-2053

진해시청 문화관광과 055-545-0101, <http://tour.jinhae.go.kr>

[▲ top](#)